



신영복이 독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세계는 지금 '1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댓가는 너무 크다. 어쩌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쩌다 '삶'과 '행복'이 상충되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일까? 다시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시작해, 《나무야 나무야》 그리고 《더불어 숲》의 저자 신영복 교수는 세계 22개국 47개 유적지와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한 후 집필한 《더불어 숲》에서 이러한 '배타적 존재론'에 의해 휘둘려온 근현대사를 비판한다.

그리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해온 '강철의 역사'의 자리에 공존과 평화를 되살릴 '더불어 숲'의 역사를 복원하자고 말한다. ◎ 지난 7월 12일, 강남 교보문고에서 만난 강태운(연구원), 김규희(교사), 김영재(대학생) 등 세 명의 젊은이들은 두 시간 가까이 숲을 만들고자 하는 한 나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무의 지난 이야기를 묻기도 했고, 나무에게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작은 숲이 되었다.

이 지면은 일정한 분야에서 꾸준한 저술과 성취를 통해 나름의 열정적인 독자군을 확보하고 있는 저자와 그의 작품을 애독하는 독자가 만나 책 바깥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고 저자의 저술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김영재 요즘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영복 잘 아시겠지만 감옥은 정보가 아예 차단된 곳이에요.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책의 종류와 기간도 정해져 있죠. 글을 쓸 때도 감옥에서는 이번 달에는 뭘 쓸까 조그만 상념 하나를 붙든 채 한 달 내내 여러가지 논리적인 사고를 중첩시키고 제 고민을 담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는 사고의 구조가 정반대로 진행돼요. 원고를 쓰면 금방 4,50장이 넘는데 밤새 앉아 25장으로 줄이는 거예요. 정보는 사람을 정갈하게 만든다기보다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칼같이 잘라내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필요한 셈이죠.

김규희 《더불어 숲》은 세계 22개국 47개 유적지와 역사현장을 직접 답사한 책이잖아요. 그 여행지들을 선택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복 왜 난생 처음 하는 해외여행지로 스페인 우베히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가 출항했던 항이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관광객도 거의 찾지 않는 초라한 항구지만 이곳은 오늘날 우리가 절감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나중에 잉카, 마야 이러한 남미문화유적지를 답사하게 되는데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유럽인들에 의해 1,600만 명이 학살되고 또 1,60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냥돼서 남미로 왔다고 합니다. 세계화는 결국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콜럼버스 개인이야 잘못이 없었지만 둥근 달같은 깨 세운 콜럼버스는 생명을 무자비하게 짓이기는 폭력성의 상징에 다름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벌어진 미국의 바그다드 침공도 그런 세계사의 기본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태운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가 선생님의 기행문을 두고 기행문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한국사람이 주체적으로 바라본 비판서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영복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드는 평가입니다(웃음). 《더불어 숲》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기마다 다른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콜럼버스 이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근대 300여 년사는 근본적으로는 폭력을 앞세운 '배타적인 존재론'에 의해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론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태운 '관계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영복 사실 '론'자가 붙으면 어려워지죠. 붓글씨를 예로 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붓글씨야말로 철저하게 관계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획을 그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굵게 혹은 비뚤게 써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음 획을 가지고 첫 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도 잘 안되면 그 다음 획으로 서로 어울리게 해요.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상하좌우를 보면서 어울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걸보기에 힘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엔 종이 전체의 하얀 부분과 검은 부분의 조화를 살피는 거죠. 관계론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자 한 자가 아니라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김규희 요즘 젊은이들은 저마다 주장도 강하고 개인적이잖아요. 제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여쭙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관계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영복 언젠가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뜻밖이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노인들이 이 지하철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자리를 양보 않느냐? 물었습니다.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인네들이 자기들 월급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냐' 하구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 세대와의 관계가 얼마나 깨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 왼쪽부터 김영재, 강태운, 신영복, 김규희.

◀ 신영복 교수의 요즘 고민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다. 한국인 삶의 형식에 맞는 글의 형식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회구조가 문제입니다. 사회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질서 그게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요. 특히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서구西歐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서 굴러가는 작은 톱니바퀴로서 느끼는 문화적 경제적 열등감입니다. 어떤 개인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많은 정보나 지식, 논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콤플렉스입니다. 옷이나 안경테를 고르는데 여지 없이 끼어들죠. 그 열등의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합리적인 가치가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 이걸 동시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작용합니다.

김영재 선생님이 세계 각국을 다녀보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아시아(한국)를 보는 시각이 어떻던가요?

신영복 솔직히 전 멕시코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니까 미국인들도 한국 사람을 멕시코인이나 흑인보다 조금 낫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 아시아가 제일 하위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보다 문화적인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멕시코대학 스타디움에 비에로 리베라의 벽화가 있는데 리베라는 피카소를 완벽하게 극복한 화가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를 빼먹은 피카소가 아니라 인디오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멕시코 민중들의 정서를 담아낸 리베라의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미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지만 미국에 멕시코 출신의 앤소니 퀸만한 배우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태운 선생님은 쉴 때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신영복 예전엔 토·일요일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나와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생각해 봤더니 교도소에 가보면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데 우리 학교 연구실 구

조랑 비슷해요(일동 웃음). 당시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 교도소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실의 토·일요일이 그랬던 거죠. 그렇다고 혼자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연필 쥐고 책 상정리하고 멍하니 창밖 보고 그래요. 지금은 학교 가는 게 즐겁지만 여전히 '멍' 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김규희 살다보면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선생님은 힘든 일을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복 힘든 일이 있으세요?(일동 웃음) 실은 저도 딱히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때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자장면 시키면 저도 자장면 시키죠. 물론 제 입장이 있지만 그건 정말 필요하다 할 때 내세우죠.

제 생각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정말 힘들다가 보다 조금할 때, 단번에 끝을 내려고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겠다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와 함께 고민해 나가며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길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길을 가야 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쉬어야 하죠. 하지만 길에서는 언제든지 쉴 수 있죠. 꽃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고속도로를 가느냐 길을 가느냐는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대는 고속도로를 달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요.

신영복 교수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신의 작업실을 마련해 두고 안식년을 보내는 등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다. 그리스의 서사시, 러시아의 장편소설처럼 그 문화 나름대로의 고유하고 특별한 글쓰기가 있듯 자신과 우리 문화전통에 맞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독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길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는 이미 그 형식을 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스스로 찾고자 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